

지역 메아리



완주군 마을변화사 상담제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

완주군의 마을변화사 상담제도가 전국 최우수 실적을 기록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5일 완주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법무부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모범자치체로 기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마을변화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시 2년 만에 올해 상담건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은 마을변화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상담실적을 거둬들여, 주민들에게 마을변화사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에 참빙 역할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완주군을 포함한 모범자치체 2곳 및 마을변화사 4명 등을 표창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사랑실천봉사회 성금 전달

완주사랑실천봉사회(회장 김기천)가 완주군 1111사회소통기금에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5일 완주군은 지난 4일 용진면 연화정에서 완주사랑실천봉사회원 70명의 임원진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2017 이웃사랑성금모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완주군에 기탁했다. 완주사랑실천봉사회 임원진은 김기천 회장을 비롯한 이강엽, 박상주 부회장과, 이병량 사무총장 등 70여명의 임원진으로 구성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토지 특성조사 착수

김제시는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 내년 2월까지 본격적인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해마다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조사대상은 총25만3천여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및 22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하여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소설긱즈2025플랜 추진

완주군, 300여개 자립형 사회경제조직 집중 육성키로

완주군이 포스트 로컬푸드 실행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신성장동력에 나선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까지 지역주민의 30%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완주소설긱즈2025플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과 행정력 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민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내부자원을 활용하고 인적역량을 키워냄으로써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지역의 필요(need)를 사회구성원의 협동,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다.

'완주에 사는 즐거움', 즉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실현의 구체적 방법론도 여기서 찾겠다는 것이다.

소설긱즈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 시스템, 상품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 차별화한 브랜드다.

세부 실행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300여개에 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 견인이다.

지난 7년간 양적성장은 이렇지만 지속가능성의 척도인 자립율은 20%대에 머물러 있으므로 종합진다, 맞춤형 방안을 통해 자립도를 5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

실제 가족공예 가우리협동조합의 경우 우 디자인 보안을 통해, 인형극협동조합은 시나리오 및 연출관련 전문 연수를 지원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정보공유, 맞춤형컨설팅, 협업장려, 네트워크형 판로확대 등이 치유의 주요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먹거리 이외의 교육, 복지, 의료, 문화, 관광, 에너지 등의 정책영역에서도 지역 니드에 부응하는 신(新)사회적경제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먹거리교육문화협동조합, 미래인력양성형 청년해의정책연구소, 로컬에너지협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정책통합과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민관협치를 강화한다.

특히 새정부 정책의 주제적 수용 및 부서간 통합적 업무조율을 위해 기획감사실에 사회혁신정책관을 둔다.

현장실행조직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들이 공동 출자,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올 12월 내 창립 예정이다.

부문별 지역 의제 발굴, 공론화과정을 통한 역량있는 리더 양성, 신규조직의 발족 등 일련의 조직화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문별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 추진한다.

이와함께 소설긱즈마켓의 시범설치와 온·오프라인 연결망을 통해 판로지원과 네트워크 축진에도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8년간 약 1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국비사업을 포함해 연간 150억원을 지속 투자한다.

사회적금융은 정부의 제도장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되며, 지역금융기관 및 지역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2025년 기준 총 1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

완주군은 소설긱즈2025플랜을 통해 300개의 자립형 사회적경제조직(소설긱즈플) 육성, 5천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500억원의 신규소득 창출, 군민의 30%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류화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민들은 자본주도의 이윤추구와 경쟁보다는 주민들간 협동방식이 일지리창출과 지역순환경제에 얼마나 이로운지 집단적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완주소설긱즈2025플랜 추진과 15만자족도시 추진의 자신감이자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향후 5년을 한국 사회적경제 가능성 및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아 관련 정책을 붓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완주군이 이에 대응하는 소설긱즈플랜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한국경제 상황분석 그리고 전망 소개

완주 CEO경제포럼 성료... "기업 특성 맞는 전략 필요" 주장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한 '제10차 완주 CEO 경제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완주군은 5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용진읍 소재)에서 열린 CEO 경제 포럼에 관내 기업체 CEO,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 CEO 경제포럼은 내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과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2018년 세계경제 동향 및 산업트렌드와 완주군 지역산

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재의 세계 경제 및 한국경제 분석과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선 소장은 "급속한 기술 변화는 기업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정점을 찍은 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각기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시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자신만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혁신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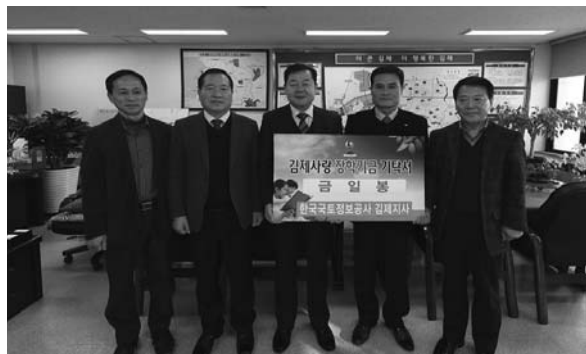
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 CEO 경제포럼 통해 기업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CEO경제포럼은 기업하기 좋은 완주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4월 제1차 포럼을 시작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CEO 등을 대상으로 마인드 향상 및 상호정보교환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 장학금 기탁

김제시랑장학재단 방문, 지역 우수인재 양성 위해

김제시랑장학재단은 5일 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지사장 윤성용)에서 김제시랑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주길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일정액을 모금하여 장학금 기탁 및 주변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었다.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년 일순이 부족한 농가에 일순돕기 추진, 소외계층에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자는 마음으로 환경정화 활동등 나눔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윤성용 지사장은 "김제는 새만금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니 만큼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후천 김제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김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2007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시랑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고의 297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내고장학교 보내기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자평선학당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김제시는 5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전북연구원 연구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연구용역의 과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PPT발표와 함께 관련 부서장들의 과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분야별 인구정책의 추진방향 설

정과 지역특색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용역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4개월이며 이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 연구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관련 실과소와 협업하여 인구유입 지원, 관내 우수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관련 실과소와 협업하여 인구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